

AI 피해 중기·소상공인 지원 나선다

중기청, 피해기업 지원 1750억원 규모 자금 조성·투입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중소기업청 지원이 본격화된다.

전북중소기업청은 AI 확산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750억원, 소상공인에게 1,000억원 등 총 1,750억원의 자금을 저리로 지원하고 기존 대출에 대한 상환유예도 병행한다.

먼저, 육가공업체 등 AI 피해 중소기업을 위해 75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이 투입된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은 AI의 영향으로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10% 이상 감소한 중소기업이 대상이며, 통상의 3.35%의 기준금리를 1.05%p 인하한 2.3%의 저리로 업체당 최대 10억원까지 지원하며(2년 거치 3년 상환), 절차도 대폭 간소화된다.

기존 대출에 대해서는 대출원금 상환을 최대 1년 6개월까지 유예할 수 있는 대출 상환유예도 시행된다.

또한, 피해기업에 대해 이미 이루어진 신·기보 보증 잔액을 1년간 만기 연장하고, 신규보증 시에는 1.0% 이내의 보증료를 적용하는 등 보증 지원도 이뤄진다.

계란 및 닭·오리의 수급 차질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는 1,000억원 규모의 AI 특별자금이 공급된다.

피해 업체당 최대 7,000만원까지 지원되고(금리 2.0%, 2년 거치 3년 상환), 대출과정에서 신용보증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AI 특별보증을 통해 신용보증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피해현황 및 애로사항의 체계적인 파악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AI 피해 비상대응반'이 가동된다.

비상대응반은 기업의 피해현황 실태

조사와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접수받아 현장에서 조치 가능한 사항은 즉시 조치하고, 부처협회가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 차원에서 해결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애로 및 건의사항이 있는 기업들은 전국 12개 지방청에 설치된 애로신고센터 등을 통해 관련사항을 접수할 수 있다.

전북중기청 정원탁 청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방문을 통해 중소기업의 피해상황을 면밀히 파악해 나가겠다"며 "AI 피해 비상대응반을 통해 접수된 애로 및 건의사항과 실태 조사 등을 토대로 추가 지원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전북본부는 12일 사회복지시설인 완주군 소양면 무지개가족을 찾아 은누리상품권을 전달했다.

중소기업 맞춤형 기술역량 강화사업 성과 '풍성'

전북경진원, 경영·기술지도·생산공정개선·디자인개발 등 사업 다양

도내 50인 이하 중소기업들의 성장 기반 구축지원을 위해 실시된 '중소기업 맞춤형 기술역량 강화사업'의 성과가 풍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와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은 '2016 중소기업 맞춤형 기술역량 강화사업'의 '최종 성과 발표 전례식'을 12일 전주 N-타워컨벤션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사업 참여기업 및 사업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해 성황리에 이뤄졌다.

이날 행사는 지난해 진행된 사업과제 수행에 따른 각 주관기관과 참여기업들의 사업성과를 전시홍보 및 성과확산과 새로운 사업모델 발굴을 위한 정보교류의 장으로 마련된 자리로 이날 행사를 통해 우수사례발표 및

유공자표창이 이뤄졌다.

이번 사업을 전담 추진한 경진원에 따르면 이번 사업을 통해 도내 20개 주관기관이 참여해 102개 세부과제 수행을 통해 230개 기업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업의 정량적인 성과로는 특허출원 등 지적재산권 등록 61건, 시제품제작 288건, 기술개발 78건, 공정개선 21건, 공인인증 38건, 경영·기술지도 70건, 기술가치평가 12건,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지원 59건, 사업화 매출액 29억8400만원 등의 괄목할 만한 사업성과를 거뒀다. 경영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들의 어려운 곳을 돕어 주는 효자손 같은 역할을 톡톡히 수행했다.

특히, 우수사례로 선정돼 도시샤표창을 수상한 대풍수산은 생산기반공정개선지원분야에서 바지락 자동세척·선별기 설계 및 시제품설치를 성공적으로 완료했으며, 바지락 세척 및 선별작업의 효율성 확대와 함께, 기존 제품대비 조작성 간편하고 낮은 가격과 작은 크기의 자동화설비 개발로 경영난과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소규모 바지락생산 어가들에게도 보급이 확산될 전망이다.

또한, R&D기획역량강화 멘토링지원 분야 수행기관인 캠티종합기술원과 함께한 30개 기업 중 6개 기업이 정부 및 지자체의 R&D사업연계 성과를 이뤄냈다.

아울러 2015년에 참여한 4개 기업도

사업 연계에 성공시키는 등, 도내 중소기업이 지역적으로 열악한 R&D사업기회 역량을 강화시키는데 크게 기여했다.

경진원 홍용웅 원장은 "본 사업을 통해 도내 연구기관과 경영여건이 어려운 중소기업이 동반성장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지역산업 발전과 함께 일자리 창출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업은 지난 2013년부터 경진원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지원 사업에서 소위된 50인 이하 중소기업의 성장기반 구축지원을 위해 도내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의 연구인력 인프라를 활용 중소기업 성장 전 단계 지원사업 프로그램을 발굴 추진하고 있어 도내 중소기업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인재용 기자

전북농어촌공, 사회복지시설 은누리 상품권 전달

한국농어촌공사 전북본부는 12일 설 명절을 맞이해 사회복지시설인 완주군 소양면 무지개가족과 남원시 노인복지관에 은누리상품권을 전달했다.

무지개가족은 중증장애인 34명에게 치료, 재활,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남원시노인복지관은 노인의 설 명절을 맞이해 사회복지시설인 완주군 소양면 무지개가족과 남원시 노인복지관에 은누리상품권을 전달했다.

은누리상품권은 고객들이 보증 이용기간 동안 최대 연 2%까지 납부하게 되는 보증료도 약 1% 수준이 되도록 감면해 고객들의 부담을 덜고, 보증금액 한도도 크게 늘려 지원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자세한 사항은 전북신용보증재단(230-3333) 또는 전북은행 각 영업점에 문의하면 된다.

/인재용 기자

전북신보-전북은행, 소상공인 금융지원 '맞손'

전북신용보증재단은 소비위축과 경기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전북은행과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6일부터 보증지원을 개시한다.

이번 '전북은행 특별출연'을 통한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협약보증은 사업자 등록 후 3개월이 경과했으며 신용등급이 1~6등급 사이로 도내에 사업장이 위치하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전북은행은 75억원 규모의 이번 자금을 통해 업체당 최대 5,000만원 한도로 대출을 지원하며,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금리 우대 혜택도 제공한다.

전북신보는 고객들이 보증 이용기간 동안 최대 연 2%까지 납부하게 되는 보증료도 약 1% 수준이 되도록 감면해 고객들의 부담을 덜고, 보증금액 한도도 크게 늘려 지원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자세한 사항은 전북신용보증재단(230-3333) 또는 전북은행 각 영업점에 문의하면 된다.

/인재용 기자

'농가소득 5000만원 시대' 모든 역량 결집한다

전북농협 업무계획 보고회

전북농협이 올해 조기 사업추진을 위해 지역본부 직원, 시군 지부장·농정지원단장이 참여하는 업무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

12일 지역본부 대강당에서 개최된 업무계획 보고회는 지역본부 각 단, 시군지부별 올해 사업방향에 대한 계획과 실천 방안을 보고했다.

업무계획 보고회에서 농가소득 5,000만원 시대를 열기 위한 방안, 농축협 균형 발전 지원,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업무혁신과 소통, 쌀 판매 및 소비촉진에 초점을 맞춰 진행했다.

전북농협은 "올해도 농가인구 감소, 고령화 등 농촌사회 구조변화가 지속되고 시장개방 확대, 소비자 기호변화로 수입 농산물 소비 증가 등 농업과 농협을 둘러싼 여건이 녹록하지 않다"며 "농업인이 행복한 국민의 농협으로 거듭나기 위한 계획을 능동적 자세로 철저히 준비·실천하자"고 결의를 다졌다.

강태호 본부장은 "전북농협은 지난해 어려운 여건에서 종합업적 전국 1위를 달성하는 등 좋은 결과를 보여

줬다"며 "올해도 파부침추의 절박한 마음으로 한 해를 대비해 주시고, 농협의 비전인 농업인이 행복한 국민의 농협을 만들고 농가소득 5,000만원 시대를 반드시 이룰 수 있도록 전북농협 임직원 모두가 앞장 서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동원F&B, 가격 5.1% 인상

지난해 말부터 계란, 과자, 식용유 등의 가격이 잇달아 오르고 있는 가운데 '참치캔'도 가격 인상 행렬에 동참했다.

동원F&B는 12일 "오는 31일부터 참치캔 가격을 평균 5.1% 인상한다"고 밝혔다. 해당 품목은 '동원참치 라이트스탠다드'를 포함한 살코기 및 가미캔 제품 18종이다.

이에 따라 '동원참치 라이트스탠다드 150g'은 2390원에서 2580원으로 7.9%, '동원마일드참치 210g'은 2390원에서 2480원으로 3.8% 판매가가 인상된다.

/뉴스

"전북경제의 희망찬 미래를 위하여"

전북여성경험 신년인사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는 12일 전주 르윈호텔에서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신년인사회에는 송하진 지사와 황현 도의장, 김승환 교육감, 김승수 전주시장, 김관영 국회의원, 정원탁 전북중기청장 등을 비롯해 도내 경제유관기관장, 여성 CEO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박영자 회장은 "새해에는 늘 현재의 가치를 보는 안목이 아닌 미래

의 가치를 볼 줄 아는 여성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현재의 위기 와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해 전북경제의 청신호가 켜지는 그날까지 희망을 갖고 달려나가자"고 신년인사를 전했다.

한편 여성경험 전북지회는 지난해 아동 인권보호를 위해 옐로카펫사업을 적극 후원했고 여성경제인의 자긍심을 높이는 국무총리상 수상을 배려했으며, 전국16개 지회 최초로 양성평등촉진유공단체로 선정돼 여성가족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인재용 기자

대한민국 홍삼 특구 진안고원

세계주류품평회 금상

眞心 홍삼주

진안고원 JINHAN GORYEO